

차가운 공기 속, 피어나는 뜨거운 호흡

경기도/롤러스포츠
홍은결(단국대학교)

코로나19는 우리를 아주 가깝고도 멀게 만들고, 함께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게 한다. 그 안에서 스포츠는 삶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며 건조한 삶을 윤택하게 한다. 2021 청소년 스포츠한마당은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었던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의 확대를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을 적용한 가운데서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 활동을 하도록 주최되었다. 자유로운 활동을 하지 못했던 학생선수들에게는 단비같이 반가운 소식이다. 그중 나는 롤러 스포츠 종목을 관람한 후 느꼈던 생각을 운동선수 시각 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할 것이다.

나는 3살이 되던 해 처음 인라인스케이트를 신었고, 초등학교 4학년이 되었을 때 학교스포츠클럽을 통해 스피드스케이팅 선수가 되었다. 초/중/고를 지나 대학생이 되기까지 13년간 선수 활동을 해왔다. 스포츠를 즐기는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즈음 코로나19로 인해 이런 상황은 점차 가속화 되어 감을 느꼈다. 운동을 하고자하는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활동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운 마음이 커졌다. 물론 나도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겪었기에 안타까움이 더욱 크게 느껴졌기에 대회 하나 하나가 더욱 소중했다.

우연히 대한체육회의 SNS를 통해 청소년 스포츠한마당에 대한 정보를 접하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관심 있게 보는 과정에서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다. 대구만촌실내롤러장에서 열린 롤러스포츠 경기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모두 관람할 수 있게 공개되어 있었다. 청소년 스포츠한마당은 서로 다른 사람이 팀이 되어 달리는 이어달리기, 전·현직 스피드 국가대표 선수들과 함께하는 경기.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코칭해주는 클리닉 등의 활동으로 이루어져있다. 나도 처음 선수가 되기로 마음 먹었던 계기가 동네에서 열리는 인라인 대회에 참가한 이후 선수들과 함께하는 활동과 이벤트에 참여하며 생기게 되었었는데, 이번에 열린 청소년 스포츠한마당 또한 많은 학생 선수와 일반 선수에게 동기 부여가 되는 좋은 시간이었을 것이라 짐작할 수 있었다. 국가대표 선수를 뒤에서 따라가며 롤러스포츠에 참가하

는 선수들이 한걸음, 한걸음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따라가는 모습에서 열정이 보였다. 조금은 뒤쳐지는 선수 뒤에서 다른 국가대표 선수가 밀어주고 든든히 기다려주는 장면은 마치 어린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었다.

롤러스포츠 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의 뜨거운 호흡이 12월의 차가운 바람과 얼어붙은 코로나19를 녹여낸다. 13세 이하의 어린 선수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적극적으로 경기에 참여함과 동시에 지나친 경쟁 없이 경기를 즐기는 모습이 영상 속에서 고스란히 담겨 있다. 내가 어렸을 적에는 즐기는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제는 점차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와 환경이 형성되고 있음이 느껴지는 장면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많아진다면 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에 쉽게 접근하여 즐길 수 있지 않을까하는 바람을 이 글에 담는다.

요즘 청소년들의 스포츠 활동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감소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더 많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을 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다.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청소년 스포츠 활동을 대외에 알리고자 다짐을 했었다. 비록 지금은 공모전에 참가하는 작은 움직임일지라도 나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이 모여 큰 파도의 기회를 만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내가 참여했던 학교스포츠클럽 활동과 다양한 체육 활동을 참가하는 과정에서 배웠던 성실함, 끈기와 같은 좋은 영향을 더욱 많은 학생들이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다음 세대의 스포츠를 위한 관심과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이는 학생 선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스포츠와의 공존과 내면/외면의 성장 및 건강함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